

## 치 사

오늘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3000배  
철야정진 나눔 결사에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그간 이룩해 온  
초고속 경제성장에 힘입어 삶은  
과거 어느 때보다 윤택해지고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 개인의

**소외와 가족의 해체, 자살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모든 생명의 존엄과  
평등을 설하셨고 그 전통은 불교에  
면면히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종단에서  
제창한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또한 이러한 발로에서이며  
불교중흥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이룬다는 사명감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난치병으로  
신음하는 어린 생명을 돌아봄으로써  
부처님께서 설하신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장이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며 희망을 나누는 나눔결사의  
장입니다.**

**오늘 이 행사가 11년째라고 하니,  
지난 10년 동안 묵묵히 스스로  
몸을 낮춰 참회 기도를 수행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 아픔은 큰 것 같지만, 남의 아픔은 안보이고, 내 탓은 없지만, 남 탓할 것은 잘 보이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한 구절의 경구를 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비의 보살행을 실천하고 참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나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임을 깨달아 나눔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발현이며 대승 보살의 수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 사고로 무참하게  
희생된 수 만 명의 소중한 생명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전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긴급구호봉사대  
선발진을 파견하여 고통을 나눈  
것은 남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는 보살심의 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고귀한 넋들이  
고통과 갈등 없는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지원 드립니다.**

**끝으로 올해로 11회째를 맞이  
하며 그간 300여 명의 고통받는  
환우에게 3억여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여 보살행을 실천해온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산하시설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단 여러분, 또한 특별히  
이번 행사에 동참하여 주신 고창  
선운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배, 한 배 절을 올리며 흘리는  
땀방울이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소중한 자비행임을 되새기면서  
오늘 세운 발원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무량공덕이 난치병의  
고통으로 시름하는 환아들과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 회향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4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